“미얀마 쿠데타 당일 대통령 하야 협박”

윈민 전 대통령 재판서 첫 공개
“동의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거부”
합법적 권력이양 군부 주장과 배치

쿠데타 군부에 의해 축출된 뒤 가택 연금 중인 미얀마의 윈민 전 대통령이 쿠데타 당일 군부가 자신에게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지금까지 쿠데타는 없었으며, 권력은 합법적으로 대통령 대행에 의해 군부에 이양됐다는 군부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현지 매체 이라와디와 외신은 12일 변호인단의 전언을 인용, 윈 민 전 대통령이 전날 선동죄 재판이 열린 수도 네피도의 특별법정에 출석, 쿠데타 당일 상황을 직접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쿠데타 당일 상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윈민 전 대통령에 따르면 쿠데타 당일인 2월 1일 오전 고위 군 장교 2명이 네피도의 대통령 관저로 들어와 자신에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자리에서 물러나달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은 건강하다며 제안을 거절했다.

변호인단을 이끄는 킨 마웅 조는 언론에 “그들은 제안을 거절하면 커다란 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윈민 전 대통령은 제안에 동의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윈민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으로 직접 나섰다. 군부 표적이 될 것을 두려워해 아무도 증인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재판부에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들은 모두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쿠데타 당시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억류돼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에 의해 발표된 군부 비판 성명은 설사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해도 자신이 모르는 채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데타 당일 NLD가 발표한 성명은 군부를 비판하고 쿠데타를 인정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여기에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민 전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수치 고문 역시 쿠데타 당일부터 군부에 의해 모처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미얀마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핑계를 들어 권력을 찬탈했다. 이 과정에서 윈민 대통령이 구금되면서 군 출신인 민쉐 부통령이 대통령 대행 자격으로 쿠데타 당일 비상사태를 선포해 군부가 권력을 넘겨받았다. /연합뉴스

아부다비 한국문화원 ‘오징어 게임’ 행사 12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관련 행사에서 드라마에 나오는 게임을 즐기러 온 참가자들이 드라마 속 진행요원 캐릭터 의상을 입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리스 미 부통령 콜럼버스데이 맞아 “부끄러운 과거 직시해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과거 유럽 탐험가들의 아메리카 대륙 상륙 후 벌어진 일들을 언급하며 “부끄러운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콜럼버스데이’ 다음날인 이날 미국 최대 원주민 단체인 아메리카인디언전국회의(NACI)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럽인의 상륙은 “부족국가 파괴, 폭력, 영토 강탈, 질병 확산의 시작이었다”며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로부터 도망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조명하고, 원주민 사회에 대한 과거의 일을 다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럼버스 데이는 1492년 10월 12일 이탈리아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10월 두 번째 월요일에 해당한다.

그러나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침략과 식민지화 등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콜럼버스 데이를 두고 갈등이 이어져 왔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는 도심에 서 있던 콜럼버스 동상을 원주민 여성 조각상의 복제품으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대체될 동상은 스페인 정복 이전 시대의 여성 조각상을 본뜬 것이다.

반대편 스페인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다. BBC에 따르면 스페인 보수우파 정치인들은 식민지 시절의 어두웠던 과거에 대해 스페인에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퇴짜를 놨다. 이들은 유럽인의 잘못을 인정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콜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도 선포하며 “많은 유럽 탐험가가 부족 국가와 원주민 공동체에 가한 잘못과 잔혹 행위 등 고통스러운 역사를 인정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지팡이 짚고 예배 참석하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12일(현지시간) 재향군인회 100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지팡이를 짚고 수도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서고 있다. 그 뒤로는 보라색 옷차림의 앤 공주 모습이 보인다. 95세의 여왕이 주요 공식행사에 지팡이를 짚고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미 보잉, 전직원에 “12월8일까지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미국 내 전 직원을 상대로 오는 12월 8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

12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 AP통신 등에 따르면 보잉은 성명을 통해 직원 1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잉은 종교적 신념이나 의학적 사유에 따라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는 인정하지만, 해당 직원은 음성 진단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한 사유 없이 회사의 이번 지침에 따르지 않는 직원은 해고될 수 있다. 이번 방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발효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정부 직원과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 중인 민간업체 직원은 12월 8일까지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용기를 제작하는 보잉은 미 국방부와 거래하는 기업으로 행정명령 적용 대상이다. /연합뉴스

시진핑은 ‘기후 고민’, 리커창은 ‘전력 고민’

탄소중립·전력난 사이 다른 목소리

중국의 최근 전력난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가 지목되는 가운데, 홍콩매체가 중국 지도부의 상반된 고민을 조명했다.

13일 홍콩 명보는 ‘시진핑의 장기고민과 리커창의 단기고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기후를 위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반면, 리커창 총리는 당장의 전력난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전날 윈난성 쿤밍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UNCBD) 당사국 총회 화상연설에서 생물 다양성 보호 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피크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정점(탄소피크)을 찍은 뒤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상태다.

시 주석은 “중국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사막 지역에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촉진하고, 설비용량이 약 1억kW(킬로와트)인 첫 번째 프로젝트를 최근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리 총리는 지난주 두 차례 회의에서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 정부 주도의 캠페인식 전력 사용 제한 움직임에 시정을 요구했다.

리 총리는 지난 9일 국가에너지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탄소피크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변혁과 고도화를 위한 요구이자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요”라면서도 “목표 실현을 과학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고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를 향해 “(급한 마음에) ‘부정출발’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지역의 일률적 전력 사용 제한과 공장 가동 제한 또는 캠페인식 석탄 사용 감축을 수정해 북방에 사는 사람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하고 경제가 안정적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보는 “시 주석과 리 총리가 또다시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사실은 초점이 다르다”며 “시 주석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을 강조했고, 리 총리는 중국 경제와 민생의 당장의 어려움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
■ 건 물 : 411 ㎡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상담 010-3733-3933